

라이프 스타일

절반 이상이 전문 경영인, 호남·충청 출신 비중 늘어나

- 인터넷 공부에 '열심'이고 금융에 대한 관심 고조, IMF 이전보다 휴일 휴식 비중 급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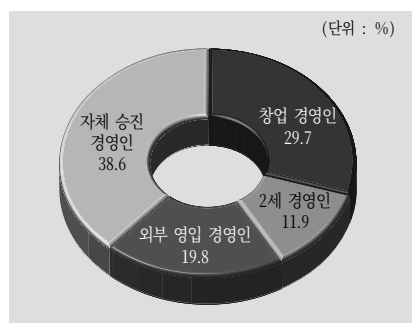
모든 직장인의 희망 중 하나는 한 기업의 최고 경영인이 되고 싶은 욕망일 것이다. 이를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계발에 열정을 쏟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직장인의 비전을 과연 건설업계가 충족시켜 줄 수 있겠는가?

규모 커질수록 전문 경영인 비중 높아

건설업 CEO 중 자체 승진(38.6%) 하였거나 외부에서 영입(19.8%)한 전문 경영인은 설문 조사에 응답한 CEO 중 58.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본인이 창업을 하였거나 창업주로부터 경영을 승계받은 2세 경영인은 전체의 41.6%로 나타났다.

2001년 3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건설업체 수는 모두 9,433개 사에 이르고 있다. 이들 일반건설업체 중 시공 능력 평가액 기준으로 상위 30위권의 기업은 건설 부문의 연간 매출액이 대

건설업 CEO와 회사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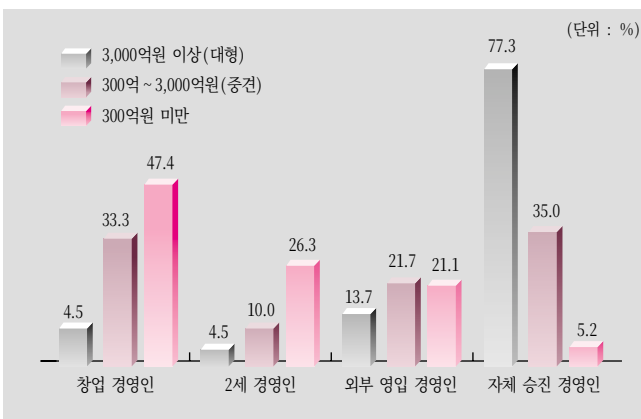
략 3,000억원이고, 200위권은 연간 매출액 300억원 수준의 중견 기업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건설업 CEO의 분포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전문 경영인 비중이 있어 대형 건설업체는 91.0%, 중견 기업은 56.7%, 중견 기업 이하는 26.3%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전문 경영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자체 승진한 전문 경영인이 77.3%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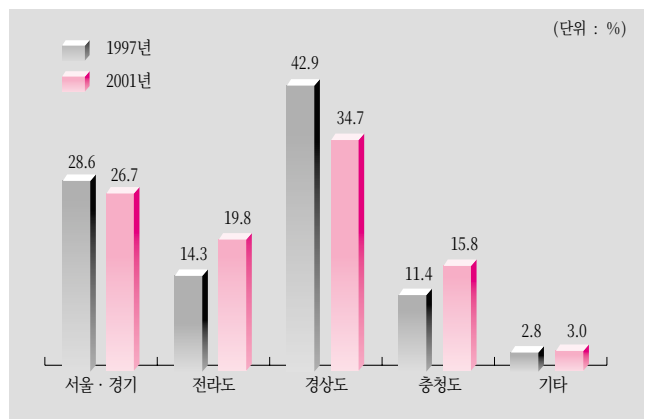
조사에 응답한 건설업 CEO의 평균 연령은 54세, 평균 건설업계 종사 기간은 22년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71.3%로 가장 많았고, 40대(21.8%), 30대(6.9%)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종사 기간은 20년 이상이 54.5%, 11~20년 28.7%, 10년 이하가 16.8%로 조사되었다.

건설업 CEO의 최종 학력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전체 응답자의 9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 대졸은 63.4%, 대학원 졸업 이상은 24.8%, 해외 유학은 5.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졸 이하 학력은 1997년 조사에서는 3.7%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는 6.9%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사 응답자의

규모별 회사와의 관계



출신 지역



출신 지역으로는 경상도 지역 출신이 3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경기(26.7%), 전라도(19.8%), 충청도(15.8%), 강원 등 기타(3.0) 순으로 조사되었다. 1997년 조사와 비교할 때 영남 지역 출신이 8.2% 포인트로 가장 많이 감소한 반면 호남권은 5.5% 포인트, 충청권은 4.4% 포인트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공부와 건강 유지에 ‘관심’

조사에 응답한 건설 CEO의 휴일 활용은 문화·레저 활동(39.6%) 등을 통해 삶을 재충전하며 보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사업 관련 교류(25.7%), 집에서의 휴식(17.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65.4%가 일을 하지 않고 여가 시간을 즐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7년 조사에서 90.2%가 휴식을 취한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즉, 1997년 조사 시점은 IMF 관리 체제 이전으로 건설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여유는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상태는 극심한 건설 경기 침체와 치열한 수주 경쟁, 원가 절감의 절박함 등 기업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무가 CEO에 부여되어 있다. 휴일에도 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건설업 CEO의 고뇌가 엿보인다.

건설업 CEO 대부분이 건강 유지에 관심(92.1%)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동을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9.1%에 달해 최고 경영자들이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깅, 체조, 산책과 같은 가벼운 운동(37.6%)보다는 골프, 테니스와 같은 강한 운동(51.5%)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 체제 이후 변한 라이프 스타일



중점 자기 계발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 건설 CEO의 54.5%가 인터넷 등 정보화 지식 배양에 힘을 쏟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골프, 바둑 등 레저 강습(18.8%), 대학원 등 전문 교육 기관 수강(9.9%), 선진 건설 기업 및 현장 견학과 같은 해외 연수(5.9%), 외국어 학습(5.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1997년 조사에서는 컴퓨터 학습과 같은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단지 1%에 불과했지만, 2001년 조사에서는 무려 53.5% 포인트가 증가하여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려는 건설업 CEO의 노력과 관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역시 ‘경기 부양’이 시급한 과제

IMF 관리 체제는 우리 경제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특히,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했다. 건설 수주액이 1996년 73조 7,000억원에서 IMF 관리 체제로 접어

든 1998년에는 47조 1,000억원으로 무려 36.1%가 감소하는 등 극심한 건설 경기 침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 상황은 건설업 CEO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 중 경제·금융에 대한 관심 증가(61.4%)가 가장 큰 변화였던 것

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도 건강 관리에 대한 각별한 유의(16.8%), 업무 시간의 증가(9.9%), 자기 계발 시간의 증가(5.9%), 업무 관련 각종 모임 증가(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업 CEO가 가장 먼저 보는 신문 지면은 경제면이 79.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앞서 언급한 경제·금융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맥락이 같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정치면(8.9%), 사회면(5.0%), 문화·스포츠면(4.0%), 국제면(3.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2년 간 지역 사회 및 봉사 단체의 장의 책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건설업 CEO의 33.7%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2번 책임지고 있는 CEO의 비중이 58.8%로 가장 많았다.

현재 건설산업은 건설 물량의 회복이 미흡한데다 금융 경색 현상이 지속되는 등 총체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 투자는 IMF 관리 체제 이후인 1998년과 1999년에 전년 대비 10% 이상씩 감소한 데 이어 2001년 건설 투자도 1997년에 비해 80.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향후에도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건설업 CEO들은 현 정부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경기 부양(78.2%)을 꼽았다. 이 외에 정치·적 안정(16.8%), 사회 안정망 구축(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시급한 해결 과제

